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Ⅱ): 청소년 이전기를 중심으로

곽금주

문은영

오산전문대학 유아교육과

미시건 주립대학교

청소년 이전기의 남녀 우울과 비행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적인 성숙, 신체상, 자아 중심성, 사회적 적응력과 우울,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국민학교 4, 5학년(평균연령 10.6세)에 해당하는 남자 청소년 169명과 여자 148명에게 성적 성숙 척도, 신체상 척도, 자아 중심성 척도, 그리고 사회적 적응력(우월한 적응능력, 충동통제력, 대처능력) 척도, 우울 척도와 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성적성숙, 충동통제력 변인이 우울과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었으나 대처능력은 우울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특히 성적성숙 변인의 효과가 남녀에게 달리 나타나 남자에서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여자에서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생애에 걸쳐 공격성, 비행, 반사회적 행동, 또는 범죄는 어느 특정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발달시기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주요한 행동 특성이다. 따라서 그 원인이나 관련 요인들에 관한 주장도 여러가지이며, 또 이를 중재, 치료하는 방법에도 다양한 견해가 있다. 특히 발달적으로 볼 때 그 시작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지, 특히 발달 과정 전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논쟁점이다. 어린 아동기 때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이 이후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 범죄에 까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은 성인기의 여러 부적응 증세(알코올 중독,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예측하는데 가장 좋은 예견자라고 한다 (Crowell, 1987).

비행의 근원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 까지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공식적으로 비행자로 낙인되지 않는 데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반사회적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특정 발달시기에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Patterson 등(1989)은 비행에 대한 두가지 발달 경로를 제시하였다. 그 한 가지는 시간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발달경로로서 부모의 강압적인 훈육 및 아동의 강압적인 행동문제가 성인기의 범죄로 계속 발전한

다는 모델이다. 즉 비행의 첫 단계인 아동초기에는 부모의 강압적 훈육과 소홀한 감독으로 인해 아동의 품행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품행문제를 지닌 아동은 일찍 신체적 공격이나 물리적 방법 등 강제적 수단을 써서 자신의 요구나 뜻을 관철하는 것을 배우고, 이러한 강압적 문제해결 방식을 동료들에게도 적용하게 되어 이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시간에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학업성적이 뒤떨어지게 된다. 즉 아동 중기인 두번째 단계에서는 또래집단의 배척과 학습부진과 같은 학교에서의 실패로 인해 우울한 기분과 비행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점차적으로 일탈집단에 어울리기 쉽고 따라서 세번째 단계인 아동후기와 청소년기에는 만성적인 비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한가지는 청소년기라는 발달 시기의 심리적 특징에 의해 비행이 유발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비행경로이다. 청소년기가 되어 일어나는 신체적, 생물학적인 변화나 가족관계의 변화들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들이 비행을 많이 한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비행을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기제는 상이하다는 것이 Patterson 등(1989)의 이론적인 제안이다.

즉 비행을 어린 아동기 부터 시작한 경우(early starters)는 앞에서 제시한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 이후 청소년기에 범법행위를 시작하는 경우(late starters)는 아동기의 강압적인 행동이나 부모 양육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고 제안하였다. 늦은 시작자(late starters)는 이른 시작자(early starters)와는 달리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겪지 않기 때문에 만성적인 비행청소년 및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는 것으로, 앞의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동 초기가 아니라 청소년기 시기에 늦게 비

행을 시작한 자(late starters)는 청소년기 후기 부터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비행이 감소하여 만성 비행자 집단에서 탈락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에 비행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어떤 요인으로 비행이 시작되어 어떤 요인으로 비행 집단에서 탈락하게 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곽금주, 문은영, 1993).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도 부모와의 결속도, 양육태도, 가족 간의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 이혼이나 결손가정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또는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곽금주, 윤진, 문은영, 1993). 그러나 이러한 변인의 대부분은 아동기 때부터 지속되는 만성적 비행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 때 급증하게 되는 비행은 이러한 요인 외에 사춘기 시기의 심리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가족환경, 친구나 학교 환경과 같은 사회적 환경 요인 외에 사춘기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연구로 곽금주와 문은영(1993)은 만 13세인 청소년 초기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적성숙 정도, 신체상, 자아중심성, 사회적 적응력(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우월한 적응능력), 그리고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해 알아 보았다. 그 결과 남자나 여자 모두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인은 우울이었으나, 남자는 반사회적 행동이 여자는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변인(자아중심성)이 여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이었다.

청소년기의 부적응에 있어서 남녀가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는 점은 이미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이다. Freud와 Erikson에 의하면 여자는 내부적 성향(internalized orientation)을, 남자는

외부적 성향(externalized orientation)을 지니고 있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공격본능을 표출하기가 더 어려우며, 억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에 근거하여 여자는 내부화된 방어(internalized defense), 남자는 외부화된 방어(externalized defense)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가정하였다(Brody, Rozek, 및 Muten, 1985). 이런 내부적-외부적 차원을 14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은 공격적인 외부로 향한 방어(aggression-outward defense)를, 여자 청소년은 자신을 향해 내부화된 방어(turning against the self)를 더 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vit, 1991).

이와 같은 청소년기 남녀의 차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곽금주와 문은영, 1993)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우울과 비행은 서로 동일한 기제에 의해서 외현상 달리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공격적인 아동과 우울 아동 간의 인지적 사고과정 패턴이 유사하다는 연구결과(Quiggle, Garber, Panak & Dodge, 1992)도 있으며, 분노나 충동과 같은 정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때 그 부정적인 결과로 공격행동이나 우울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Dodge & Garber, 1991).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우울과 비행 간에는 서로 상관이 높으며, 우울이 비행의 예측변인이라기 보다 사춘기의 심리적인 갈등이나 변화가 반사회적행동으로 외부적으로 표출되거나 혹은 내부적인 방향으로 우울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인 사고든, 정서적 조절이든 간에 그 어떤 원인에 의해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우울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초기의 변화를 더 분명히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청소년 이전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정도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요인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10세 이전

에 살인, 방화, 절도, 강도와 같은 범죄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4세경 까지 점차 증가하여 그 절정에 이룬다고 보고하고 있다(Crowell, 1987). 또 청소년기를 이전기, 초기, 후기로 나누어 그 시기에 따라 이전기(국민학교 4학년)에서 가장 설명력이 있는 변인은 사회적 기술로 사회적 기술의 결핍이 비행 또래와의 교체 및 반사회적 행동과 상관이 있으나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이 변인의 설명력은 감소되었다(Snyder, Dishion, Patterson, 1986). 따라서 청소년 이전기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도 이미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양상은 청소년기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행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청소년 초기가 아니라 청소년 후기 연령 대상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이전기 연령에서는 전무한 실정이다(곽금주 등,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이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사회적응적, 인지적인 여러 심리적 특성(성적성숙, 신체상, 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우월한 적응능력, 상상의 청중)이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춘기에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의 양상이 남녀가 다르게 나타나나, 그 이전시기에는 남녀가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규명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 법

피험자. 서울의 국민학교 4, 5학년에 해당하는 남자 169명과 여자 14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만 10.6세 였다.

측정도구

1. 성적 성숙 : 이차 성특징의 성숙을 측정하

는 자기보고식 사춘기 발달척도(Petersen, Crockett, Richards, Boxer, 1988)에 근거하여 제작된 측정도구(이춘재, 오가실, 정옥분, 1991)에서 남녀 문항수를 일치시켜 사용하였다. 즉 겨드랑이 털, 여드름, 음모의에 남자는 콧수염이나 턱수염, 변성을 측정하였고, 여자는 유방과 월경 유무에 관해 측정하였다. 각기 1단계에서 3단계까지의 성숙정도가 있으며, 최저 5점에서 최고 15점까지 있다. 본 연구에서 문항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49였으며 선행 연구(곽금주와 문은영, 1993)에서는 .65였다.

2. **신체상(body image)** : 신체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자기신체와 신체발달 상태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측정하는 9개 문항을 사용했다. 이것은 한국판으로 번안된(이춘재 등, 1991) Petersen, Schulenberg, Abramowitz, Offer 및 Jarcho (1984)의 SIQYA(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중 신체상 척도이다. 신뢰도 계수는 .60이다.

3. **자아중심성** : 자아중심성의 두가지 구인 중 '상상의 청중'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판 상상의 청중 척도(New Imaginary Audience Scale: NIAS)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에 관한 최근 연구(Lapsley, Fitzgerald, Rice, Jackson, 1989)에서 사용한 척도를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요인분석하여 비교적 가중치 값이 낮은 문항을 제외한 단축판이다(장근영, 1992). 특정한 상황에 놓인 자신을 상상하는 빈도를 묻는 21개 문항이 Likert형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83이었다.

4. **사회적 적응력** : 사회적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판으로 번안된 Petersen 등 (1984)의 SIQY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중 그 일부를 사용하였다. SIQYA란 청소년기의 여러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 대한 자

신의 지각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중 일반적인 적응능력을 설명하는 우월한 적응능력(superior adjustment), 충동 통제력(impulse control), 대처능력(mastery and coping)을 측정하였다. 각 척도는 '자신과 매우 비슷하다'에서 '자신과 전혀 다르다'의 6점 척도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우월한 적응능력 척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또는 주변 상황의 조절 능력에 대한 우월감을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이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7이다. 대처능력 척도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현재와 장래의 예상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50이다. 충동 통제력 척도는 분노나 다른 충동적인 감정 및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잘 통제한다고 느끼는 가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 .54이다.

5. **우울** :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척도(Revised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depression Scale: Revised CES-D-K)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우울증상을 주로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하는 20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척도는 임상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울한 기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obinson, Shaver, Wrightsman, 1991). Noh, Avison 및 Kasper(1991)가 이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캐나다의 한국교포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4개의 문항을 첨가한 '개정된 한국어판 역학연구-우울 척도'를 중심으로 '역학연구-우울 척도: 청소년용'에 부가된 2개 문항을 더하여 총 26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연구된 바 있다(김정민, 1992). 이 척도는 우울한 기분, 죄책감, 무기력감, 무기력감, 심리운동적 지체상태, 식욕의 상실, 수면장애등을

주로 반영한 것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5이었다.

6. 반사회적 행동 : 반사회적 행동이란 사회학자들이 사용한 ‘숨은 비행’ 개념과 유사하나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닌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곽금주 등, 1993). 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곽금주와 김하연(1991)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문항을 수정 보완시켜서 기존의 25개 문항에서 48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즉 국민학교 4, 5학년 아동,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약 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분 또래들이 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쓰게 하였다. 이와같은 자유반응을 분석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타당한 문항을 선별하여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문항 48개를 만들었으며(곽금주, 문은영, 1993), 그 중에서 국민학교용에 해당하는 4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빈도를 고려한 등간척도의 수준에서 측정하고자 반응을 ‘없다’에서 ‘많다’까지 1점에서 5점을 주어 점수화하였다. 이때 각 문항의 행동빈도가 각각 다를 수 있고, 그 정도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중치를 주어 분석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균을 각 문항의 최고점수인 5에서 뺀 값을

가중치로 계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90이다.

결 과

성적성숙, 신체상, 자아중심성(상상의 청중), 사회적 적응력(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우월한 적응능력), 우울, 반사회적 행동변인에 관한 남녀의 반응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1에 제시되어 있다.

성적인 성숙, 신체상, 반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남녀의 성차이가 있었다.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성적인 성숙이 더 빨랐으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가 여자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된 표2를 보면,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다. 우울과는 신체상, 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우월한 적응력이 부적 상관을 보였고, 반사회적 행동과는 성별, 대처능력, 충동통제력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관련변인이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

표 1. 각 변인에 대한 남 녀 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 체	남	여	F
성적 성숙	6.21 (1.20)	5.88 (1.01)	6.58 (1.29)	28.91*
신체상	35.61 (8.19)	37.41 (8.41)	33.59 (7.47)	17.10*
대처능력	40.88 (6.85)	41.13 (6.54)	40.61 (7.19)	.43
충동통제력	27.02 (6.63)	26.89 (6.50)	27.17 (6.79)	.12
우월한 적응능력	37.98 (8.01)	38.41 (8.18)	37.47 (7.82)	1.02
상상의 청중	51.53(10.26)	51.21(10.83)	51.88 (9.62)	.30
우 울	25.06(11.24)	24.57(10.09)	25.60(12.43)	.59
반사회적 행동	212.44(45.72)	225.07(52.80)	197.82(29.92)	28.99*

* p<.0001

표 2. 각 변인들간의 상관

	2	3	4	5	6	7	8	9	10
1. 연령	.04	.24**	-.10	.04	-.04	-.12	.02	.02	.12
2. 성별		.32**	-.24**	-.07	.05	-.16	-.03	.07	-.28**
3. 성적 성숙			-.07	-.09	-.06	.01	.03	.15	.11
4. 신체상				.45**	.15	.38**	.00	-.36**	.01
5. 대처능력					.19*	.46**	.08	-.05**	-.05
6. 충동통제력						.26**	.04	-.26*	-.37**
7. 우월한 적응능력							.38**	-.28**	-.08
8. 상상의 칭증								.15	.14
9. 우울									.37**
10. 반사회적 행동									1.00

* $p < .01$, ** $p < .001$

표 3.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 변인	R	R ²	Adjusted R ²	F
전체				
충동통제력	.3935	.1548	.1507	37.19*
성	.4767	.2272	.2196	29.69*
성적 성숙	.5116	.2617	.2507	23.75*
남자				
충동통제력	.403	.1630	.1551	20.64*
성적 성숙	.5157	.2660	.2520	19.02*
여자				
충동통제력	.4396	.1933	.1848	22.76*

* $p < .0001$

표 4. 우울에 관한 중다회귀분석

예측 변인	R	R ²	Adjusted R ²	F
전체				
대처능력	.4886	.2387	.2352	67.41*
충동통제력	.5279	.2787	.2719	41.34*
성적 성숙	.5402	.2918	.2919	29.26*
남자				
대처능력	.4362	.1902	.1831	26.55*
충동통제력	.4872	.2373	.2237	17.43*
여자				
대처능력	.5327	.2838	.2766	39.62*
성적 성숙	.5706	.3256	.3119	23.89*

* $p < .0001$

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3에 있다.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남녀 전체에서는 충동통제력, 성별, 성적성숙이 남자에서는 충동통제력, 성적성숙 변인이, 여자에서는 충동통제력 순으로 나타났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밝히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인 표 4를 보면, 남녀 전체에서는 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성적성숙이, 남자에서는 대처능력, 충동통제력이 여자에서는 대처능력 성적성숙이 유의하게 설명력이 있는 변인이었다.

성별, 성적성숙, 충동통제력, 대처능력을 독립 변인으로 하고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경로계수를 산출한 것이 그림 1, 2, 3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 전체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인 그림1을 보면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 간의 상관관이 있었고($r = .37, p < .001$), 성별(경로계수 $\beta = -.33, p < .001$), 충동통제력(경로계수 $\beta = -.36, p < .001$), 성적성숙(경로계수 $\beta = .20, p < .01$)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적성숙(경로계수 $\beta = .12, p < .05$), 충동통제력(경로계수 $\beta = -.20, p < .001$), 대처능력 변인(경로계수 $\beta = -.44, p < .001$)은 우울에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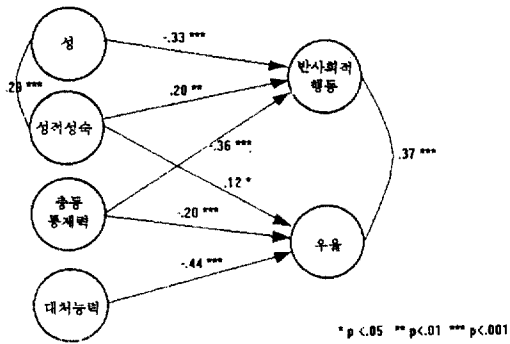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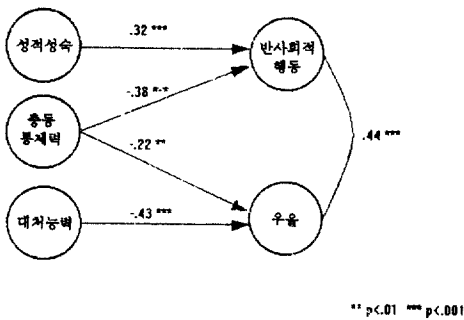


그림 2.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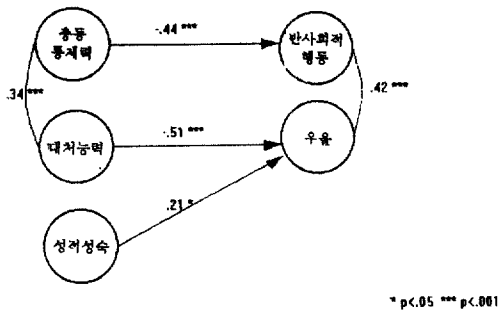


그림 3.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여자)

영향을 미쳤다. 그림 2는 남자에 대한 경로분석의 결과이다.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성적성숙(경로계수 $\beta = .32, p < .001$), 충동통제력(경로계수 $\beta = -.38, p < .001$)이었으며 우울에는 충동통제력(경로계수 $\beta = -.22, p < .01$), 대처능력 변인(경로계수 $\beta = -.43, p < .001$)이 영향을 주었다. 여자에 대한 분석결과인 그림3을 보면 충동통제력(경로계수 $\beta = -.44, p < .001$)이 반사회적행동에, 대처능력(경로계수 $\beta = -.51, p < .001$)과 성적성숙(경로계수 $\beta = .21, p < .05$)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이었다.

논 의

사춘기가 시작되기 직전 연령의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겠다.

남자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이 여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으나, 우울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다.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에 관련된 변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충동통제력이 가장 예언력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과 성적 성숙 요인이었다. 그리고 남자에서는 충동통제력이 낮고 성적성숙이 빠를수록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는 충동통제력의 효과만 있어 성적성숙과는 무관하게 충동통제력이 낮은 여자가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였다. 우울에 있어서는 대처능력, 충동통제력, 성적성숙이 주요 요인이었는데, 대처능력이 낮고 충동통제력이 낮고 성적성숙이 빠를수록 우울을 보였다. 남녀를 구분해 보면, 남자의 경우 대처능력과 충동통제력이 낮을수록 우울을 보이거나 성적성숙 정도와는 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대처능력이 낮고, 성적성숙이 빠른 청소년이 우울함을 보여 충동통제능력과 우울은 무관하였다.

남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해 주는 성적 성숙요인이 여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요인이었고 여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충동통제력이 남자의 우울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과 반사회적 행동이 서로 동일한 기제에 의해 외현상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좀 더 확고하게 해준다. 특히 남녀의 성별에 따라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표출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충동통제력이 반사회적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대처능력 요인은 우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서 조절 능력의 부정적인 결과로 공격행동이나 우울이 일어난다는 주장(Dodge & Garber, 1991)과 관련하여 볼 때 충동통제력이나 대처능력 요인이 정서조절 능력과 관련된 구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좀 더 확실히 볼 필요가 있겠다.

사춘기인 만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곽금주와 문은영, 1993)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반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며, 여학생이 보다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변인으로 상상의 청중, 신체상과 같은 특성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남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성적성숙 요인이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더 어린 연령인 만 10세의 청소년 이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성적 성숙요인이 남자의 반사회적 행동과 여자의 우울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요인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이미 청소년 이전 시기에 시작되는 생물학적 변화가 부적응적 행동의 원인이 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든 그 자체가 아니라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2차성징의 발달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적 성숙발달이 또래에 비해 빠르거나 느리게 되면 이것은 주요 심리적 결과를 낳게 된

다는 선행 연구(Tobin-Richards, Boxer 및 Petersen, 1983)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특히 이 시기의 성적성숙은 개인마다 그 수준 차이가 크며, 느린성숙자(만숙아)에 비해 빠른 성숙자(조숙아)가 심리적 적응문제가 더 많고 정서상태가 부정적이었다 (Petersen과 Crockett, 1985). 이러한 성적성숙이 미치는 영향은 남,여에 따라 각기 다른데,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일관적이지 않으나,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숙이 빠른 사람이 더 많은 긴장을 나타내며(Richards와 Larson, 1993), 또 조숙아가 더 많은 비행을 하였다(Duncan, Ritter, Dornbusch, Gross, 및 Carlsmith, 1985). 이는 연령보다 성적 성숙이 심리적 장애에 더 큰 결정요인이라는 Richards와 Larson (199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춘기의 시작을 몽정이나 월경의 시작으로 보기는 하나, 가슴이 나오는 것과 같은 2차 성장의 초기 발달이나 호르몬 변화의 시작은 만 9, 10세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청소년 이전기에 이미 시작하는 성적 성숙발달이 반사회적 행동이나 우울과 같은 청소년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보아 청소년 이전기와 청소년기를 비교하는 연구가 앞으로 요구된다. 특히 우울에 있어서 만 13세 연령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있으나(곽금주와 문은영, 1993),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인 만 10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청소년 이전기에서 청소년기로의 그 전환점(transitional point)이 어느 시기이며 이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걸친 장기 종단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적 성숙 측정도구는 5개의 문항으로 되어있어 비교적 신뢰도가 낮았다. 이는 2차 성징의 발달이 대략 사춘기 이전 부터 시작하여 남, 녀 모두 대략 5년의 시기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신체부위의 발달시기에 상

당한 시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겨드랑이 털, 여드름, 콧수염, 가슴의 돌출 등으로 각기 다른 변화과정을 측정하므로 어떤 문항의 신체발달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덜 변화된 신체 부위에 해당하는 문항이 있어 이들 간의 신뢰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춘기 직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성적 성숙 문항의 신뢰도(.49)가 더 나이가 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의 신뢰도(.65)보다도 더 낮게 나온 것 같다. 그러나 성적 성숙을 보다 더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항을 좀더 확충 시킨다든지, 그림을 사용하는 것, 또는 호르몬 측정과 같은 좀 더 다각적인 방법으로 2차 성적 발달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전 연구(곽금주와 문은영, 1993)에서 설명된 자아중심성 요인은 본 연구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데,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김인경, 1993)는 청소년 후기로 가야 자아중심성의 하위구인인 상상의 칭증이 그 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 이전기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들에서 우울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비교적 신뢰도 계수가 높으나 거기에 비해 충동통제, 대처능력, 우월한 적응능력과 같은 사회적 적응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신뢰도 계수가 낮았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이 척도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이춘재와 곽금주, 1994),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문항을 다듬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곽금주, 김하연 (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

회정보처리과정간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곽금주, 윤진, 문은영(1993). 한국청소년 비행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2-27.

김인경(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하위구인의 내용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21-43.

김정민(1992). 청소년기 기질적합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춘재, 오가실, 정옥분(1991). 사춘기 신체성숙시기와 심리사회적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89-102.

이춘재, 곽금주(1994). 자기상으로 본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I): 연령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2), 119-135.

장근영(1992). 분리-개별화 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Crowell, D. H. (1987).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In D. H. Crowell, I. M. Evans & C. R. O'Donnell (Eds.), *Childhood aggression and violence: Sources of influence, prevention, control*. Plenum press: New York.

Cytrn, L., & Mcknew, D. H.(1974). Factors influencing the changing clinical expression of the depressive process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1(8), 879-881.

Dodge, K. A. & Garber, J. (1991). Domains of emotion regulation.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Uni-

- versity Press: New York.
- Duncan, P. D., Ritter, P. L., Dornbusch, S. M., Gross, R. T., & Carlsmith, J. M. (1985). The effects of pubertal timing on body image, school behavior, and devia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227–235.
- Lapsley, D. K., Fitzgerald, D. P., Rice, K. C., & Jackson, S. (1989). Separation–individuation the “new look” at imaginary audience and personal fable: Toward a general model of adolescence ego development. In D.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ractive approaches*. N.Y.: Springer.
- Levit, D. B. (1991). Gender differences in ego defenses in adolescence: Sex roles as one wa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6), 992–999.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Noh, S., Avison, W., & Kasper, V. (1992). Depression symptoms among Korean immigrants: Assessment of a translat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 Depress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4, 84–91.
- Patterson, G. R., DeBaryshe, B. D., & Ramsey, E.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329–335.
- Petersen, A. C., & Crockett, L. J. (1985). Pubertal timing and grade effects on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91–206.
- Petersen, A. C., Crockett, L. J., Richards, M., & Boxer, A. (1988). A self–respect measure of pubertal status: Reliability, validity, and initial norm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7(2), 122–144.
- Petersen, A. C., Schulenberg, J. E., Abramowitz, R. H., Offer, D., & Jarcho, H.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93–111.
- Quiggle, N. L., Gaber, J., Panak, G. W. & Dodge, K. A. (1992).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aggressive and depressio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1305–1320.
- Richards, M. H. & Larson, R. (1992). Pubertal development and the daily subjective states of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2), 145–169.
- Robinson, J. P., Shaver, P. R., & Wrightsman, L. S. (1991).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an Diego: Academic Press.
- Stattin, H., & Magnusson, D.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criminal behavior up to age 30.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4), 327–346.
- Snyder, J., Dishion, T.J., & Patterson, G. R. (1986).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ssociating with deviant peers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6(1), 29–43.

The Relationship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I): In Preadolescence

Keum-Joo Kwak and Eun-Young Mun

Osan College

M. S. U.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of pubertal timing, body image, egocentrism, social adaptation,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preadolescence. The subjects were 169 boys and 148 girls (mean age: 10.6) in the fourth and fifth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six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pubertal timing, body image, imaginary audience, social adaptation (mastery and copying, impulse control, superior adjustment),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Results indicated that impulse control, sex and pubertal timing affected antisocial behavior while 'mastery and copying', impulse control and pubertal timing affected depression. The most intriguing finding was that pubertal timing affected antisocial behavior in boys but depression in girls. This results were discussed comparing with the previous research findings focused on early adolescence. And its implication and suggested following study were also discussed.